

누굴 만나도 늘 한결 같았던 벤투 감독



지난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자예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카타르의 경기에서 한국 파울루 벤투 감독이 손흥민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서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늘 한결 같았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25일 오후 10시(한국시간) UAE 아부다비의 자예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0-1로 패했다. 1960년 이후 59년 만의 정상을 바라봤지만 북병 카타르에게 달미를 잡히며 준결승 조차 밟지 못했다.

한국처럼 우승을 노리는 팀들은 한 달에 가까운 장기전이라는 생각으로 아시안컵에 임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 7경기를 치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해당 내용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선수기용으로 조기 탈락을 자초했다. 심지어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중국도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아시안컵 카타르와 8강전서 0-1패배
로테이션 없어 주전 선수들 체력 저하
변함없는 전술·무의미 빌드업 고집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했으나 벤투 감독은 이렇듯 하지 않았다. 대회 내내 선발 명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벤투 감독이 손을 댄 포지션은 김진수(전북)와 홍철(수원)을 번갈아 기용했던 왼쪽 측면 수비가 유일하다. 약팀을 만날 때나 16강 진출이 확정됐을 때나 늘 쓰는 선수만 썼다. 마치 소집 후 1~2경기만 치르는 평가전을 보는 듯 했다. 이는 선수들의 빠른 체력 저하로 이어졌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못한 선수들은 점차 중요한 토너먼트에서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했다. 중국전에서 손흥민(토트넘)을 길게 뛰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 지난 14일 UAE에 입성한 손흥민은 이를 뒤 중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 선발 출전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90분을 소화한 뒤 불과 사울 만이었다. 손흥민의 중국

전 출전 시간은 무려 89분이나 됐다. 사실상 풀타임이나 마찬가지였다. 중국전 승리로 손흥민의 기용은 성공으로 포장됐으나 얼마 못 가 밀전이 드러났다. 바레인과의 16강전과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손흥민은 평소와 달리 무척 무기력했다. 후반 막판에는 힘에 부친 듯 거의 걸다시피 했다. 손흥민은 탈락이 확정된 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정말 꺼려하는데, 대표팀 와서 몸 상태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경기장에서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였다. 팀이 거는 기대감이 크고 내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력 문제 겹치니 너무 못했다." 여기에 변함없는 전술과 뻔한 교체 카드 사용, 파상 공세가 필요한 시기에서의 무의미한 빌드업 등도 실망스러운 성적의 원인이 됐다. 벤투 감독의 고집이 불러온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KIA타이거즈, 내달 1일 일본 스프링캠프

KIA 타이거즈가 2019시즌을 대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KIA는 오는 31일 일본으로 출국해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오키나와(킨 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스프링캠프에는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4명, 선수 40명 등 5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3일 또는 4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훈련을 소화하고, 2월 중순부터 한국 및 일본 팀들과 13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KIA는 내달 11일 우리소에 구장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일본 프로 팀들과 7차례의 연습경기를 펼친다. 2월 16일 두산 베어스(구시카와 구장)와 경기 등 국내 팀들과

- ◇KIA 타이거즈 2019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명단
- ▲코칭스태프 = 김기태, 김민호, 강상수, 코우조, 김중국, 홍세완, 김민우, 이대진, 서재용, 김상훈, 박종하, 배요한, 정상우, 고영득
 - ▲투수 = 윤석민, 양현종, 터너, 윌랜드, 김윤동, 임기영, 한승혁, 이민우, 황인준, 김세현, 문경찬, 고영창, 박지훈, 홍건희, 이준영, 유승철, 하준영, 김기훈(신인), 홍원빈(신인), 장치수(신인)
 - ▲포수 = 김민식, 신범수, 한준수
 - ▲내야수 = 김주찬, 이범호, 김선민, 안치홍, 최원준, 류승현, 유민상, 홍재호, 이창진, 최정민, 오정환
 - ▲외야수 = 최형우, 나지완, 해줄, 베이커, 박준태, 이은총, 문선재
- 도 6차례 연습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아시안컵 마친 선수단, 소속팀 복귀



손흥민은 영국으로 바로 출국
12명은 오늘 오후 인천 도착

8강 탈락으로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을 마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각자의 소속팀으로 돌아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5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자예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대회 8강전에서 0-1로 패했다. 1960년 이후 59년 만의 정상을 바라봤던 벤투호는 카타르에게 달미를 잡혀 허무하게 도전을 멈췄다.

선수들은 26일부터 이동을 시작한다. 손흥민은 이날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떠난다. 지난 14일 UAE에 입성한 손흥민은 조별리그 1경기와 토너먼트 2경기만을 치른 채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됐다. 손흥민은 3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중국전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풀타임으로 공격에 힘을 보탰지만,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체력 저하 탓인지 기량 발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 번째 아시안컵에 임한 손흥민이 득점없이 대회를 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이르면 31일 왓포드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정용(보훈), 황희찬(함부르크), 이승우(베르더노)도 이날 소속팀으로 향한다. 홍철(수원)은 한국에 들리지 않고 수원 삼성의 전지훈련지로 곧장 가기로 했다.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권경원(대전), 구자철, 지동원(이상 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킬) 등 해외에서 뛰는 이들 역시 개별 이동한다. 나머지 12명의 선수들은 28일 새벽 비행기에 탑승한다. 한국 도착 시간은 월요일 오후 4시 50분이다.

김영권, 황희찬과 한솔밥 일 감바 오사카 이적 확정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중앙수비수 김영권이 일본 프로축구 J1리그 감바 오사카로 이적했다. 감바 오사카는 2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프로축구 광저우 헝다에서 김영권을 완전 이적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등 번호는 19번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합류 시점과 계약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영권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광저우에서 뛰었다. J1리그는 익숙한 무대다. 그는 지난 2010년 F2D코에서 프로 데뷔를 했다. 이후 오미야 알디 자를 거치며 일본 무대를 3년간 경험한 적이 있다. '태극전사'들과도 한솔밥을 먹는다. 감바 오사카에는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인 황희찬과 국가대표 출신 풀백 오재석이 뛰고 있다.



KIA, '도전, 새로운 미래'...새 캐치프레이즈

KIA 타이거즈가 2019년도 캐치프레이즈를 '도전, 새로운 미래 Always KIA TIGERS' 로 확정했다. 이번 캐치프레이즈는 KIA 선수와 프런트 등 모든 구성원이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야구 환경과 마케팅 트렌드에 적극 대응

하며 팀의 미래를 설계하고, 선수단과 프런트가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강팀으로 자리잡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한편 캐치프레이즈 '도전, 새로운 미래'의 글씨는 광주시립미술관장을 역임했던 최영훈 전 조신대 교수가 KIA 타이거즈의 선전을 기원하며 써서 기증했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마을, 회현사, 선전길,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